

2019년 2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으로 상승 트럼프 “정말로 미·중 무역협상은 잘 진행 되고 있다”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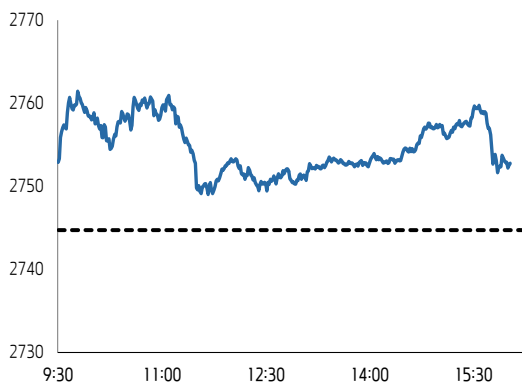
미 증시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무역대표단 방문 및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그러나 루비오 상원의원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 비판하자 상승폭이 축소(다우 +0.46%, 나스닥 +0.08%, S&P500 +0.30%, 러셀 2000 +0.31%)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비판. 루비오 의원은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35%→21%)로 인해 늘어난 수익을 재투자 하는 대신에 자사주 매입에 사용 했다면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 특히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이로 인한 수익을 재투자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는데, 기업들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 인하 효과가 약하다고 언급. 이를 빌미로 루비오 의원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세제 혜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

실제 법인세 인하로 수익이 증가한 미국 기업들은 2018 년 약 1 조 1 천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미 증시 상승을 주도. 그러자 올해 초 버니 샌더스와 척 슈머 상원의원은 고용에 대한 투자(최저임금, 유급휴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안 했었음. 그러나 이 법률안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음.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였던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의 발표로 향후 공화당 내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관련 변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목.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기댄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는 점을 감안, 루비오 의원의 발표는 향후 미 주식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201.48	+0.50	홍콩항셱	28,497.59	+1.16			
KOSDAQ	739.91	+1.28	영국	7,190.84	+0.81			
DOW	25,543.27	+0.46	독일	11,167.22	+0.37			
NASDAQ	7,420.38	+0.08	프랑스	5,074.27	+0.35			
S&P 500	2,752.98	+0.30	스페인	8,982.40	-0.01			
상하이종합	2,721.07	+1.84	그리스	656.08	+0.15			
일본	21,144.48	+1.34	이탈리아	19,989.90	+0.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에너지 업종 강세

게임업체인 블리자드(+6.96%)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발표로 상승 했다. 힐튼(+6.47%)은 양호한 실적 발표로 상승 했다. 매리어트(+3.59%)도 동반 상승 했다.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레티스(+29.58%)는 양호한 실적과 1분기 가이드스 상향 조정으로 급등 했다. 반면, 인터넷 업체인 그루폰(-11.11%)은 부진한 실적발표와 가이드스 부진 여파로 급락했다. 이스라엘 제약회사인 테바(-7.69%)는 예상보다 약한 매출 전망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마이크론(+3.17%)은 KeyBanc Capital이 연말까지 낸드 부족 기대감을 언급하며 메모리반도체 업체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0.67%), 인텔(+0.92%) 등도 동반 상승 했다. 광산업체인 프리포트맥모란(+6.96%)은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에너지 업종인 아파체(+3.86%), 데본에너지(+3.66%)를 비롯해 코노코필립스(+0.49%), APC(+2.90%) 등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상승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6%	대형 가치주 ETF(IVE)	+0.38%
에너지섹터 ETF(OIH)	+0.18%	중형 가치주 ETF(IWS)	+0.41%
소매업체 ETF(XRT)	+0.02%	소형 가치주 ETF(IWN)	+0.43%
금융섹터 ETF(XLF)	+0.27%	대형 성장주 ETF(VUG)	+0.31%
기술섹터 ETF(XLK)	+0.13%	중형 성장주 ETF(IWP)	+0.2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6%	소형 성장주 ETF(IWO)	+0.22%
인터넷업체 ETF(FDN)	-0.15%	배당주 ETF(DVY)	-0.01%
리츠업체 ETF(XLRE)	+0.6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9%
주택건설업체 ETF(XHB)	-0.2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1%
바이오섹터 ETF(IBB)	+0.30%	미국 국채 ETF(IEF)	-0.25%
헬스케어 ETF(XLV)	+0.22%	하이일드 ETF(JNK)	-0.10%
곡물 ETF(DBA)	-0.12%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0.24%	Long/short ETF(BTAL)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7.57	+1.29%	+0.04%	+4.09%
소재	338.70	+0.10%	+1.07%	+4.92%
산업재	631.15	+0.63%	+2.12%	+10.86%
경기소비재	864.37	+0.62%	+1.06%	+3.89%
필수소비재	560.05	+0.25%	+1.82%	+5.13%
헬스케어	1,055.58	+0.25%	+0.57%	+3.19%
금융	434.12	+0.20%	+0.51%	+5.12%
IT	1,208.81	+0.14%	+0.54%	+7.77%
커뮤니케이션	152.34	-0.10%	-0.28%	+2.23%
유틸리티	281.77	-0.30%	+1.55%	+5.31%
부동산	214.71	+0.58%	+1.00%	+7.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7% MSCI 신흥 지수도 0.7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222 계약) 여파로 0.80pt 하락한 284.9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4.9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투자은행들은 관련 이슈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 위주로 4 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2 월에는 216 억 순매수에 그치는 등 수급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코스닥이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연초 이후 4,163 억원 순매수 했으며 2 월에만 3,500 억원 순매수 했다. 결국 외국인은 1 월에는 거래소 특히 반도체 업종을 순매수 했다면, 2 월에는 코스닥 위주로 순매수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감안 외국인은 개별 기업들에 주목하는 등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늘 한국 증시는 옵션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지수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는지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2.2% 상승

1 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변화가 없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mom +0.1%)를 하회한 수치다. 전년 대비로는 1.6% 상승 했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해 시장 전망치와 일치 했다.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공급 감소 기대속에 상승

국제유가는 IEA(국제에너지기구)가 1 월 OPEC 산유량이 하루 평균 3,083 만 배럴을 기록해 4 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이는 12 월 발표보다 하루 93 만 배럴 감소한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주도로 감산이 이어졌다. 한편, IEA 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 했다. 이런 가운데 EIA 는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치(+210 만 배럴)보다 많은 36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 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달러화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2% 상승 했다고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여파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파운드화는 메이 총리가 “3 월 29 일 시한인 브렉시트 연기는 없다” 라고 주장 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여전히 EU 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 한 이후 약세폭은 제한 되었다.

국제금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yoy +2.2%)가 상승하고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 1 번, 내년에도 1 번의 금리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 했다. 매파 성향의 메스터 로레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인상하기 전에 경제관련 정보를 더 모아야 한다” 라고 언급 했다.

금은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미진한 물가지표 여파로 소폭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 기대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여파로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4%, 철근도 1.66%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90	+1.51	-0.20	Dollar Index	97.167	+0.47	+0.81
브렌트유	63.61	+1.91	+1.47	EUR/USD	1.1268	-0.51	-0.83
금	1,315.10	+0.08	+0.05	USD/JPY	111.04	+0.51	+0.97
은	15.652	-0.24	-0.31	GBP/USD	1.2847	-0.35	-0.66
알루미늄	1,860.00	-0.05	-2.46	USD/CHF	1.0089	+0.22	+0.68
전기동	6,125.00	+0.31	-2.45	AUD/USD	0.7089	-0.08	-0.23
아연	2,597.00	-0.42	-3.96	USD/CAD	1.3257	+0.14	+0.33
옥수수	378.75	+0.13	-0.33	USD/BRL	3.7591	+1.24	+1.57
밀	526.00	+0.81	-0.52	USD/CNH	6.783	+0.14	+0.07
대두	916.50	-0.11	-0.57	USD/KRW	1121.70	-0.20	+0.26
커피	102.30	-1.21	-5.76	USD/KRW NDF1M	1124.92	+0.37	+0.37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09	+2.16	+1.47	스페인	1.231	-0.50	-2.40
한국	1.990	+1.00	+0.70	포르투갈	1.592	-4.20	-6.70
일본	-0.006	+0.70	+0.70	그리스	3.892	-3.30	+0.70
독일	0.123	-0.90	-3.90	이탈리아	2.782	-6.00	-7.50